



▲ 황 교 승 현장소장

감성을 자극하는 안전! 감동하는 안전! 무재해·무사고·무결점의 진해자이로 탄생

-GS건설(주)진해자이 현장-

모든 것을 삼킬 듯 뜨거웠던 8월도 이들의 무재해를 향한 신념 앞에 기를 펴지 못하고, 태평양 바다 저편으로 물러가야 했다.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많은 타워크레인 아래 무재해·무사고·무결점의 진해자이가 탄생하고 있다. 전체 10개동을 자식의 안녕을 위해 하나하나 공드려 쌓아 올린 돌탑처럼 근로자의 안전을 기원하며 한층한층 올라가고 있는 진해자이는 GS건설(주)에서 시공을 하고 있다.

작은 부석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촘촘한 파란색의 낙하물방지망이 멀리서도 진해자이 현장임을 알게 한다.

감성안전이 자율안전의 기반이 되고 있는 진해자이

파란색의 낙하물방지망이 현장을 휘어 감고 있는 가운데 분주한 일과가 시작되고 있는 진해자이 현장에는 파란색의 의미 만큼 특별함이 있다. 감정의 색, 상호간의 이해를 중요한 정신적 미덕으로 삼고 있는 파란색이 가지는 속뜻처럼 진해자이의 안전도 파랗다.

그 어떠한 것도 근로자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이 없는 이 곳은 안전이 그렇다. 과거 꼭 지켜야 한다는 강압적인 것을 버리고 그들이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이현장에서는 파란색의 참 뜻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연령이나 인생 경험에 있어서 직원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늘 직원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형님을 대하듯 대하러



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을 나서면 모두가 형님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황교승 소장의 말은 근로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무재해·무사고·무결점을 만드는 감성안전인 것이다.

이러한 감성안전에는 복지증진이 중심에 있다. 현장 3곳에 설치된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에는 TV, 취침시설, 음료시설을 비치하고, 여름에는 제빙기, 여름수건을 놓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울 때에는 따뜻하게 낮잠을 청할 수 있도록 침낭을 제공하고, 무더운 여름, 상판 슬라브 작업 근로자에게 여름 조끼 지급 등은 근로자들 사이에 어필이 되어 자율적인 현장분위기로 이어진다.

특별한 교육! 차별화된 포상제도!

타율이 아닌 자율은 안전교육에서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이 강제적 집합교육인 것과 다르게 교육 강사가 현장을 찾아 짧은 휴식, 중식시간을 이용 특별, 수시교육을 시행하는 현장 투어식 안전교육이 그렇다. 현장근로자들로 하여금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는 현장투어식 안전교육은 효과 또한 높다.

강제적 집합교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방위 교육장 같은 잠자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가장 집중하기 좋은 3~4분의 짧은 교육시간과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와 장비를 이용한 교육이다 보니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을 협력업체 대표자, 담당자가 주축이 되어 월 1회 안전교육을 시킴으로써 설득력 있게 다가선다는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다음은 새로운 포상제도로 자율안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이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나눠 먹기식 개인 포상제도가 아닌 단체포상제도이다.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공적이 있어야하며, 누가 보아도 공감이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나눠 먹기식의 개인포상제도는 안전포상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 이곳에서는 단체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는 결국 팀별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안전 경쟁체제에서의 자율안전이 뿌리내리고 있다.

근로자에게 유익하지 않은 행사성 안전관리는 과감히 정리


눈에 보이는 안전, 형식적인 안전, 실효성이 없는 행사성 안전은 진해 자이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게시물 하나를 게시하는데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익 정도를 따져 무분별하게 걸어 놓는 계몽안전은 하지 않는다.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요란하게 현장을 치장하는 것을 건설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곳 진해자이현장은 철저하리 만큼 근로자에 있어 실용성을 검토한 후 투자를 한다.

이처럼 황교승 소장은 현장 안전관리의 저비용 고효율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짝돌이 방식은 아니다. 하나의 투자를 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 황교승 소장의 취지이다.

“늘 하는 것이니까”, “다른 현장도 다 이렇게 하니까”라는 식의 타성에 젖은 발상은 무재해·무사고·무결점 현장으로 이끌지 못하므로 현장관리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황교승 소장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발상에서 달라진 안전시설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중 발코니 난간 높이의 변화이다. 이 곳 난간대는 50-100-150cm의 3단화로 작업발판 위 작업근로자의 추락재해 위험을 원천 봉쇄하고, 근로자들이 난간대를 쉽게 제거하지 못하도록 고정부위에 너트 및 분할편을 추가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 밖에도 볼트길이 최소화, 고정너트 접이식으로 변경, 타워크레인 풍속계 디지털화 등은 생각을 바꾸면 현장이 바뀔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황교승 소장은 이곳이 현장 총괄책임자로서 첫 번째 입문하는 현장으로 책임감과 중압감이 하루 하루가 외줄타는 기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정율 50%가 넘는 지금 시점에서 감성안전은 정착되었고, 무재해 준공으로 향하고 있다. 앞으로도 근로자가 처음 현장에 들어섰을 때의 몸상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진해자이현장을 다년간 근로자들에게 “GS건설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각인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전한다. 

〈최종덕 기자〉

